



3면

김 지사, 군산시의원과 고성 다툼에 유감 표명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음 1월 13일) 제36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7일 정읍시 청 강당에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읍 미래 성장 가능성 기대감’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정읍

도민과의 대화 등 통해 현안 논의... “더 나은 전북 만들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정읍을 찾아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전북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다.

김 지사는 이날 정읍시청에 도착해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 등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환영 속에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꽃다발 전달과 기념촬영이 진행된 후 소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시의장단, 도의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환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읍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중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이 공유됐다. 김 지사는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며 정읍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였

다. 약 3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로 시작된 행사는 이학수 시장의 환영사와 2036 하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으로 분위기를 달렸다.

김 지사의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김 지사는 진솔한 답변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김관영 도지사의 방문은 정읍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읍,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읍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뜰날’ 가수 송대관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컨디션 난조로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향년 79세

‘해뜰날’, ‘유행가’ 등으로 큰 인기를 누리던 트로트 가수 송대관(사진)이 지난 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은 1989년 ‘혼자입니다’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고향이 남쪽이었지’ 등 히트곡으로 승승장구하며 태진아, 현철, 설운도와 함께 트로트 4대천왕으로 불렸다.

음악 활동과 함께 드라마 ‘공주가 돌아왔다’(2009), ‘신기생면’(2011)에도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송대관은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9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성동구 편에 초대 가수로 나와 ‘지갑이 형님’을 열창했고, 다음 주 가요무대 출연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故 송대관에 대해 각계 각층의 애도가 잇따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밝혔으며, 고인과 함께 시대를 풍미한 가수 태진아와 설운도도 슬픔을 드러냈다. /뉴스시스

도, 정월 대보름 산불 예방 총력

내일부터 이틀간 비상체제 돌입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나서

감시 인력 배치 초동 진화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월 대보름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도내 일선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다.

특히,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장, 달집태우기, 쥐불·들불놀이 등 민속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시군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 /이만호 기자

도하고, 산불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과 전문 진화대 1,418명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순환근무를 운영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한 신속 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비상 대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쥐불놀이 등 어린이 불법난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달집태우기, 풍물 놀리기, 무속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민들께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을 삼가 주시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시군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창업부터 폐업시 정리까지... 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지원부터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시 정리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789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보육실을 운영하며, 입주 기업(88개 업체)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최대 400만원), 지식재산권 취득(최대 200만원),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전북민생솔루션’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영

총 17개 사업에 1789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경영 안정화

개선, 마케팅, 브랜드 개발, 세무·노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영환경 개선 비용(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SNS 및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최대 250만원)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최대 500만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1조원이었던 특례보증 규모를 2025년 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450억원 증가한 2,800

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하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 대응 저출산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결혼 10년 이내이거나 임신 및 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특례보증 시 1~3%의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제공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0.5%, 최대

30만원)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월 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20%), 산재보험(50%)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장 정리 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브릿지 보증지원’을 통해 개인 보증 전환을 지원하여 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담은

순창 강천산 오토캠핑장

강천산 오토캠핑장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5월~10월)	비고
		평일	주말		
오토캠핑장	1면/1일	20,000원	25,000원	30,000원	
부대시설	전기시설	2,000원/1일			
	주차장	무료			오토캠핑장 이용객만 사용 가능
	샤워장	무료			

◆ 사이트 크기 : 파쇄석(7m×10m, 8면), 목재데크(4.5m×5.5m, 13면)
◆ 예약 방법 : 강천산 홈페이지(<https://gangcheonsan.kr/>)
◆ 문의사항 : 063-650-5540(강천산군립공원)